

월드뮤직그룹

Nomadic Soul

(노마딕 소울)



팀 소개서

활동 목적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공식 수교를 맺은 이후부터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몽골인에게 최고의 소비 대상이며, 많은 한국인은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만끽하기 위해 매년 몽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 몽골의 문화 콘텐츠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자 비주류 문화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2014년 첫 몽골 여행 이후 몽골의 전통악기인 '마두금'에 심취해 현재까지 연주자로 활동 중인 한국인 연주자 타미르(김연준)가 2024년 월드뮤직그룹 <노마딕 소울(Nomadic Soul)>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보기 힘든 몽골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더욱 친숙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본 밴드의 활동 목적입니다.

주제

○ 왜 마두금인가?

몽골의 문화예술은 그들이 사는 터전인 몽골의 자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은 광활한 초원, 드넓은 황무지와 사막, 높은 산맥과 뾰족한 침엽수림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인들은 그들의 전통문화, 특히 음악에서 몽골의 자연과 그 속에서의 삶을 많은 부분 투영했습니다. 그로 인해 등장한 몽골의 전통악기인 '마두금'은 수 세기 동안 대자연과 유목민 사이를 영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문화는 한국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 마두금과 몽골음악의 특징

몽골의 문화는 그들이 키우는 가축인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초원 위에서 걷고 뛰는 말의 모습을 본떠 그들의 음악에 녹여냈습니다. 몽골 전국에 걸쳐 말과 관련된 전통 연주곡이 존재하며, 지역마다 템포의 차이만 있을 뿐 말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몽골의 음악은 그들의 전통악기인 마두금으로 연주합니다. 악기의 상부에 말머리를 장식하고 말꼬리 털로 현과 활털을 만듭니다. 말과 함께 지속해온 몽골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전통문화입니다.

○ 지금 우리에게 마두금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에서 소비 가능한 문화 콘텐츠는 케이팝과 국악, 서양 클래식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 그중에서 몽골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마두금과 몽골 음악은 그 자체로 신선하면서 우리의 문화예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유목민 공동체를 보듬어주며 힘을 북돋아 주던 몽골음악을 국내에 알림으로써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흥겹고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팀원 : 총 6명

역할	이름	현직 / 주요 경력
마두금	타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머르컴퍼니 대표 · IKEL몽골전통예술진흥재단 한국 지사 부대표 · 정규 1집 <Nomadic Stranger> 및 싱글 3장 발표 · 몽골 문화훈장 <Soyoliin terguunii ajiltan> 수훈 · 제7회 국제 마두금 페스티벌 일반부 경연 3위 · 2019 성동책마루 정오의 문화공연 하반기 경연 2위 · 2018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단합상 · 사사: N.Zagdsuren, Ch.Boldsukh · 객원: 아리아시아, 충북민예총, 하림과 블루카멜 앙상블
건반	이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사 · 창작국악앙상블 '달려운' 멤버 · 2017 Asi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Korea 입상
클래식 기타	염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천대학교 클래식 기타 전공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예술대 기타전공 석사 · 한국기타협회 콩쿨 입상
가야금	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학사 · 창작국악앙상블 '달려운' 멤버 ·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 단원 · 2020 한울림 25현 가야금 온라인 경연대회 동상 · 2019 중국 악무계 국제 민족음악제 공연 · 제26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
퍼커션	설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림예술단 예술감독 · 누에보 플라멩코 컴퍼니 단장 · 월드뮤직그룹 카이다스 대표 · 하림과 블루카멜 앙상블 퍼커셔니스트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융합미디어학과 외래교수 ·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전수자 · 2009 제17회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 세계문화오픈(WCO) 전통예술분야 3위
팬플룻	정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대학교 음악과 팬플룻 전공 학사 · 부쿠레슈티 국립음대 팬플룻 석사과정 실기 만점 졸업 · 루마니아 Craiova 콩쿠르 팬플룻 부분 1위 · 사사: 홍광일, 게오르그 잠피르

□ 프로그램 : 총 8곡

	내용	출연자(역할)
1	<p>《천마 (Uulen bor)》</p> <p>- 작곡: 첵드 수흐바타르 (Ts. Sukhbaatar)</p> <p>구름 위를 달리는 천마를 표현한 마두금 연주곡.</p>	<p>타미르(마두금)</p> <p>이은경(건반)</p> <p>설호중(퍼커션)</p> <p>정종수(팬플룻)</p> <p>염해석(클래식 기타)</p> <p>아리(가야금)</p>
2	<p>《음악이 들려오는 고향 (Ikeliin egshigt nutag)》</p> <p>- 작곡: 척바드라흐 푸렙후 (Ts. Purevkhuu)</p> <p>몽골 알타이 산맥 지역 민속악기인 '이킬(ikel)'의 연주법을 기반으로 작곡한 곡.</p>	<p>타미르(마두금)</p> <p>이은경(건반)</p> <p>설호중(퍼커션)</p> <p>아리(가야금)</p>
3	<p>《이름 없는 바람》</p> <p>- 작곡: 세. 엔흐바야르 (Se. Enkhbayar)</p> <p>재일교포 아티스트 양방언과 내몽골 작곡가가 공동작업한 뉴에이지 음악.</p>	<p>타미르(마두금)</p> <p>아리(가야금)</p>
4	<p>《내 마음 속 고비 사막 (Setgeld shingesen gobi)》</p> <p>- 작곡: 나츨 장츄너롭 (N. Jantsannorov)</p> <p>광활한 고비 사막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풍정을 표현한 곡.</p>	<p>타미르(마두금)</p> <p>이은경(건반)</p> <p>정종수(팬플룻)</p>
5	<p>《내 안의 그대 (Kozimnin qarasy)》 (카자흐스탄)</p> <p>- 작곡: 아바이 쿠난바이울리 (Abai Qunanbaiuly) / 편곡: 김연준</p> <p>카자흐스탄의 민족 시인인 아바이 쿠난바이울리가 1891년에 작곡한 사랑 노래.</p>	<p>타미르(마두금)</p> <p>정종수(팬플룻)</p> <p>염해석(클래식 기타)</p> <p>아리(가야금)</p>
6	<p>《해 뜨는 집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영국)</p> <p>- 작자 미상 / 편곡: 애니멀스 (The Animals)</p> <p>영국 로웨스터프 지역에서 전래된 전통 민요.</p>	<p>타미르(마두금)</p> <p>이은경(건반)</p> <p>설호중(퍼커션)</p> <p>염해석(클래식 기타)</p>
7	<p>《이집트 여인 (Misirlou)》 (그리스-중동)</p> <p>- 작자 미상 / 편곡: 테오도토스 데메트리아데스 (T. Demetriades)</p> <p>중동에서 기원해 튀르키예, 그리스로 전래된 작자 미상의 전통 민요.</p>	<p>타미르(마두금)</p> <p>설호중(퍼커션)</p> <p>정종수(팬플룻)</p> <p>염해석(클래식 기타)</p>
8	<p>《잘름 하르 (Jalam khar)》</p> <p>- 작곡: 에렉젠 처이덕 (E.Choidog)</p> <p>몽골 신화 속 검은 말인 '잘름 하르'가 초원 위를 뛰노는 것을 표현한 현대 무곡.</p>	<p>타미르(마두금)</p> <p>이은경(건반)</p> <p>설호중(퍼커션)</p> <p>정종수(팬플룻)</p> <p>염해석(클래식 기타)</p> <p>아리(가야금)</p>